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 연구*

이영미**

〈차 례〉

1. 머리말
2. 선교사 2세의 출생과 성장
3. 한미관계사 연구와 극동협회 참여
4. 태평양 전쟁 참전과 한국에서의 활동
5. 맺음말

[국문초록]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은 1892년 내한한 북감리교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한국사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활동한 최초의 미국인 학자이다. 1931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이하 'UC 버클리'로 줄임)에서 『1895년 전 한국과 한미 관계(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로 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오리건대학 사학과에 재직하면서 학술 단체 창립과 학술지 발행에도 참여하였다. 학자로 활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종전 후 몇 년 간 한국에서 활동한 데다 50세에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을 다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학계에 안착하고 당대의 동아시아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한국학의 역사에서 그의 역할과 공헌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본 논문은 노블의 생애와 한국 연구에 관한 시론적 검토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의 출생과 성장, 학업 등을 살펴보고 그가 1925년경 데넷(Tyler Dennett, 1883~1949)의 영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 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으로 한미관계사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음을 밝혔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의 한국 연구 활동을 다루었다.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이미 연구를 진행한 것,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보다 10년 먼저 박사 학위를 받은 것, 오리건대학 사학과에서 동아시아사를 담당하며 한국사를 가르친 것, 1941년 극동협회(Far Eastern Association)의 창립과 『계간 극동(The Far Eastern Quarterly)』의 발행에 기여한 것 등이다. 마지막 장은 그의 생애 마지막 10여 년에 할애하였다. 1942~1944년 태평양 전쟁 참전과 전후 일본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노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UC 버클리, 오리건대학, 데넷, 맥쿤, 극동협회, 『계간 극동』

1. 머리말

1884년부터 1945년까지 개신교 선교를 위하여 내한한 미국인들의 수는 1,000명을 훌쩍 넘는다.¹⁾ 개중에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Mary F. B. Scranton, 1832~1909)처럼 50대 과부도 있었고 선교사 생활 내내 독신으로 지낸 사람(거의 다 여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갓 결혼한 부부가 함께 오거나 독신으로 왔다가 동료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한국에 살면서 아펜젤러(Alice Appenzeller, 1885~1950)를 필두로 수많은 아이들을 낳아 길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선교사 2세’로 칭하겠다.

선교사 2세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단히 익숙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정서나 인식도 그들 부모의 그것과 다른 면이 있었다. 그들의 부모에게 한국은 선교지였고 나중에는 제2의 고향이었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수식어가 불필요한 ‘집’이자 말 그대로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한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해방 후에는 한국이나 해외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1) 조선혜의 집계에 따르면, 1884~1945년 내한 개신교 선교사 1,529명 중 1,059명(약 70%)이 미국인이었다(조선혜 지음, 『매티 노블의 선교 생활,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3쪽).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인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1892년 내한한 북감리교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써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 한국사를 전공한 대학 교수, 미 군정 고문, 주한미국대사관 서기관 등 한국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력을 거쳤다. 본업으로 삼은 한국 연구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는 한미관계사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학계에서 활동한 첫 번째 학자였다.²⁾ 1931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이하 'UC 버클리'로 줄임)에서 『1895년 전 한국과 한미 관계(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로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 후에는 오리건대학 사학과에 재직하면서 학술 단체 창립과 학술지 발행에도 참여하였다. 학자로 활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종전 후 몇 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데다 50세에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을 다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학계에 안착하고 당대의 동아시아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한국학의 역사에서 그의 역할과 공헌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국내에서 노블은 소개된 바가 별로 없다. 1975년 컬럼비아대학의 한국현대사 연구자 볼드윈(Frank P. Baldwin, 1932~현재)의 주도로 사후 출간된 『전쟁 중의 대사관(Embassy at War)』이 조금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책은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한 노블이 한국전쟁 초기의 전문과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1978년 『역사학보』에 서평이 실리고 1980년 번역서가 나오면서 학계와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³⁾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노블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연자이자 투철한 반공주의자였던 노블이다. 편집자 볼드윈은 이 책 서두에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은 물론

2) 노블보다 먼저 한국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인으로는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1890~1951)(뉴욕대학/교육학), 피셔(James E. Fisher, 1886~1989)(컬럼비아대학/교육학), 클라크(Charles A. Clark, 1878~1961)(시카고대학/비교종교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 모두 한국에 돌아와 선교 현장에 복귀하였다(이영미, 『1900~194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와 서양인들의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6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181쪽).

3) 홍승기, 『〈서평〉 Embassy at War by Harold Joyce Noble,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XXIV+331 pp.』, 『역사학보』 80, 역사학회, 1978;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 속의 大 使館: 6·25 당시 美 대사관원이 치른 한국동란 秘錄』, 한림사, 1980.

학위 논문 제목까지 명시하였으나,⁴⁾ 그의 학문 활동은 당시 국내 학계의 관심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조명되지 못했다.

노블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그의 한미관계사 연구 성과를 참고한 연구자로 손정숙이 있다. 손정숙은 1883~1905년 주한미국 공사들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에서 그의 연구 논문 3편을 참고문헌 목록에 올렸다.⁵⁾ 이후 노블에 대한 언급은 기혼 여성 선교사로서 그의 모친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선혜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등장한다. 내용은 『전쟁 중의 대사관』에서 볼드윈이 소개한 것과 대체로 유사하나, 노블을 포함하여 5남매의 이력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⁶⁾

본 논문은 이상에서 밝힌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사에 근거하여 노블의 생애를 검토할 것이다. 중심 내용은 그가 미국 한국학의 첫 번째 주자가 된 배경과 과정, 실제 연구 활동 등이지만, 워낙 미지의 인물이기 때문에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기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의 출생과 성장, 학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대는 1903년부터 오하이오웨슬리언대학을 졸업한 1925년까지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지속된 그의 한국 연구 활동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그가 미국 동아시아학의 시작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강조하고, 그의 UC 버클리 후배이자 한국사 연구의 동지였던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마지막 장은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에 할애하였다. 태평양 전쟁 참전과 해방 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관해서는, UC 버클리와 오리건대학이 각각 소량의 ‘노블 문서(Harold Joyce Noble Papers)’를 보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 of California)에서 자료의 분량과 종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⁷⁾ 실물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현지에서만 가능하다. 해외에 나

4) Harold Joyce Noble, *Embassy at Wa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Frank Baldwin,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 v~vi.

5) 손정숙, 「한국 근대 주한미국공사 연구(1883-1905)」,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82쪽.

6) 조선혜, 「노블 부인의 선교 생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4~37쪽.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자료를 직접 검토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노블의 연구 활동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하였으며, 특히 600쪽에 이르는 그의 미출간 박사학위논문은 UC 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입수하였다.⁸⁾ 필자는 시론적 성격의 본 논문을 시작으로 향후 자료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선교사 2세의 출생과 성장

해롤드 노블의 부모는 1892년 10월 내한한 북감리교 선교사 아서 노블(W. Arthur Noble, 1866~1945)과 매티 노블(Mattie W. Noble, 1872~1956)이다. 두 사람은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으로 와이오밍세미너리(고등학교)에서 만나 선교사의 꿈을 키우던 중,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뉴욕에 온 캐나다 의사 홀(William J. Hall, 1860~1894)과의 교제를 통하여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다.⁹⁾ 그들은 1891년 말 홀의 한국행에 고무되어 이듬해 4월 북감리교 해외선교부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과 결혼, 안수 등의 절차를 거쳐 서둘러 한국 땅을 밟았다. 아서는 드루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고 매티는 고등학교 과정을 갓 마친 20세의 소녀였다.

노블 부부는 5남 2녀를 낳았다. 1896년 미국에서 낳은 둘째와 이듬해 평양에서 낳은 셋째는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였으나, 장녀와 아들 넷은 살아

7) UC 버클리의 노블 문서(1930~1947)에는 ①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남긴 메모 ② 진주만 조사 관계 서류 ③ 태평양관계협회, 미국협회(태평양관계협회의 미국 본부), 미국대중국정책협회와 교환한 서신이 있다. 오리건대학의 노블 문서(1918~1948)에는 ① 1918년 미국적십자사 일본지사의 회의록 일부 ② 1918년 하얼빈의 상황을 다룬 보고서 사본 ③ 1922~1923년 노블이 의장으로 있던 서울 소개 러시아난민구조위원회 관련 자료 ④ 해방 후 한국 정세와 미군의 일본 점령에 대한 문서가 있다.

8) 도서관 외부 서고에 잠들어 있던 노블의 박사학위논문을 구해 주신 장재용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9) 홀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만난 셔우드(Rosetta Sherwood, 1865~1951)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고 1890년 한국 선교사로 떠나자, 그녀의 뒤를 따라 이듬해 12월 내한하였다. 두 사람은 1892년 6월 결혼하고 평양에서 활동하였다.

남았다. 본 논문의 주인공인 해롤드 노블은 1903년 1월 19일 다섯째 아이로 태어났다. 위로는 누나 루스(Ruth E. Noble, 1894~1986)와 형 올든(Alden E. Noble, 1899~1960)이 있었고, 아래로는 쌍둥이 형제 글렌(Glenn A. Noble, 1909~2001)과 엘머(Elmer R. Noble, 1909~2001)가 있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루스를 제외하고, 아들 넷은 모두 평양에서 태어났다.

20세기 전후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남녀를 무론하고 대부분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식년이나 통신 과정을 이용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으므로 자신의 자녀들도 대학 교육이라는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하였고, 따라서 10대 중반이 되면 딸이든 아들이든 미국에 보내 대학 입시를 준비시키려고 했다. 아서와 매티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한 당시 두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는 한국에 빨리 오고 싶어서였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실제로 아서는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미국에 돌아간 1895년 학업을 재개하여 이듬해 4월 졸업하였고,¹⁰⁾ 1900년 전후 아마도 통신 과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매티는 남편처럼 학업을 계속하지는 못하였으나 선교부에서 제도화해 놓은 3년 과정의 한국어 시험을 2년 만에 통과하였다.¹¹⁾ 두 사람은 1896년 9월부터 평양에서 활동하면서 루스, 올든, 해롤드를 평양외국인학교에 보냈고, 1914년부터 1934년 은퇴할 때까지 서울에서 활동하였으므로 글렌과 엘머는 서울의 국민학교에서 공부시켰다.

해롤드 노블의 누이 루스는 1901년 평양외국인학교에 들어가 8학년까지 마치고 1909년 여름 미국 유학을 떠났다. 당시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친 선교사 2세들은 저명한 진도자 무디(Dwight L. Moody)가 설립한 노스필드세미너리(여학교)나 마운트허몬스쿨(남학교)에 많이 진학하였다.

10) 조선혜 지음, 앞의 책, 404쪽. 조선혜의 박사학위논문에는 1895년 드루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해리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조선혜, 앞의 논문, 30~31쪽). 1900년대 초 작성된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원 명단에 'W. A. 노블, 박사, 목사(Noble, Ph. D., Rev., W. A.)'가 있는 것을 보면 연도와 대학은 불분명하지만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11) 조선혜, 위의 책, 59쪽.

루스도 친구 2명과 함께 노스필드세미너리로 향하였다.¹²⁾ 그녀는 노스필드 세미너리(1909~1911)와 양친의 모교인 와이오밍세미너리(1911~1915), 뉴욕신학교의 전신인 성경교사훈련학교(1915~1918)를 졸업하였고, 귀국 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북감리교 선교사 2세인 아펜젤러(Henry D. Appenzeller, 1889~1953)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한국 선교사가 되었다.

형 올든은 루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유학을 시작하였다. 노블의 부모는 1912~1913년 두 번째 안식년을 고향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내며 평양의 국인학교 6학년이었던 올든과 4학년 해롤드를 미국 학교에 보냈고, 곧 15세가 되는 올든을 미국에 남긴 채 1914년 초 선교 현장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스처럼 잘 적응하지 못했다. 루스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루스는 친구들과 함께였지만 그는 혼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향수병과 좌절감에 시달리다가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였으며, 거주지가 서울로 바뀜에 따라 서울외국인학교에 들어갔으나 곧 장티푸스에 걸려 5개월을 누워 지내야 했다.

1915년 가을 올든은 서울외국인학교에 복귀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듬해 7월 다시 한국을 떠났다.¹³⁾ 이번에는 오하이오주로 가서 오하이오웨슬리언예비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느라 일정이 꽤 지연되었지만 이후의 과정은 순조로웠다.¹⁴⁾ 그는 1923년 오하이오웨슬리언 대학(문학사)을 졸업하였고, 이듬해에는 동물학 전공으로 오하이오주립대학(이학석사)을 졸업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은 『기니피그의 본능적 반응(Instinctive Reactions of Guinea Pigs)』이었다.

해롤드 노블은 평양과 서울에서 공부한 후 1919년 여름 16세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의 유학 생활은 훨씬 안정적이었다. 형 올든이 있던 오하이오주로 가서 그와 함께 살면서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1924

12) 조선해, 앞의 책, 246~248쪽.

13) 매티 월콕스 노블 지음, 강산미·이양준 옮김, 『노블 일지, 1892-1934』, 이마고, 2010, 349쪽.

14) 올든의 묘비에는 그가 캘리포니아 제166보병연대 K중대에서 이병으로 복무하였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https://www.findagrave.com/memorial/137649484/alden-earl-noble>). 1916~1939년 미국 사병 및 장교 명부에도 1917년 5월부터 1919년 5월까지 그의 이름이 나온다.

년 오하이오웨슬리언대학(문학사), 이듬해 오하이오주립대학(문학석사)을 졸업하였는데, 형과는 달리 역사학에 흥미를 느껴 『1750-1785년 인도 사법 제도의 현지 풍습 인식(The Recognition Given Native Custom in the System of Judicature Established in India, 1750-1785)』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 그가 왜 이 주제를 선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인도에서 나고 자란 가든 자매와의 친분이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겠다. 가든 자매는 캐나다 출신 목사의 딸들로서 인도 텔랑가나주에서 태어났고, 상급 교육을 받기 위하여 1918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왔던 것이다. 가든 자매와 노블 형제는 친구로 출발하여 몇 년 후에는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언니 펄(Pearl F. Garden)은 1924년 여름 올든과 결혼하였고, 동생 프랜시스(Frances Garden)는 1929년 해롤드와 결혼하였다.¹⁵⁾

그러나 인도에 대한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해롤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미 관계를 신중하게 연구해보겠다는 것이었다. 19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다룬 유명한 책 『동아시아의 미국인들(Americans in Eastern Asia)』(1922)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¹⁶⁾ 이 책의 한국 관련 부분이 워낙 빈약하니 자신이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1931년 8월을 기준으로 약 6년 전이라고 했으니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학업을 일단락한 1925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

3. 한미관계사 연구와 극동협회 참여

1925년 10월 올든이 북감리교 선교사 신분으로서 아내와 함께 내한하면서, 노블 가족은 부모에 이어 장녀와 장남까지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교장

15) 가든 자매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올든의 아내와 해롤드의 아내가 성이 같은 것을 보고 출입국 서류, 인구조사서, 혼인증명서 등을 역추적하여 구성하였다.

16)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31, p. iii.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의 권유로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하였다. 전년도 봄 수물과(數物科)를 증설하였으니 과학 관련 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단 생물학 강사로 재직하면서 생물학과 설치를 목표로 노력하였다. 자신의 봉급을 털고 부친으로부터 특별 현금을 받아 실험 기구를 마련하는 열의를 보였다.¹⁷⁾

해롤드 노블은 1926년 한국에 돌아왔다. 볼드윈은 그가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기록하였지만, 그가 한국에 온 목적은 형 올든처럼 교육에 종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 관계 연구를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는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인 신분으로 지냈다. 『이화100년사 자료집』에 따르면 1927년부터 1928년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는데,¹⁸⁾ 2년 내내 일한 것은 아니어서 1927년 여름 미국 방문을 위하여 한국을 떠났다가 이듬해 초 돌아오기도 했다.

노블은 한국에 머물면서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로 줄임)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였다. 한국지부는 1900년 6월 한국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창립된 학술 단체이다. 초창기에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여 몇 년간 학술지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1911년 활동을 재개한 이후 어엿한 한국 연구의 본산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적인 한국 연구를 꿈꿨던 그가 한국지부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1926년 한국지부 회장직을 수행한 자형 아펜젤러의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이하 ‘『회보』’로 줄임)에 수록되었던 논문들의 색인을 만들었고, 『회보』 1927년호에 이를 게재하였다.¹⁹⁾ 색인을 만드는 일은 한국지부보다 어찌면 그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다. 그동안 출간된 한국 관계 연구 성과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그간의 연구사와 자료 현황을

17)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885-1985 Ⅰ 연세통사 (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72~177쪽; 매티 윌콕스 노블 지음, 강선미·이양준 옮김, 앞의 책, 351쪽.

18)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69쪽.

19) Harold J. Nobl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dex to Monographs, Vol. I-XVI”, *Transactions* Vol. XVII, 1927.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블의 본격적인 한미 관계 연구는 1927년 포크(George C. Foulk, 1856~1893)의 개인 문서를 입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포크는 1883년 보빙사가 미국에 갔을 때 현지에서 사절단을 수행한 해군 소위이자 1880년대 중엽 주한 미국대리공사로 복무한 인물이다. 1884년 5월 말 민영익 일행과 함께 내한할 당시 그의 보직은 공사관부 해군 무관이였다. 그러나 이듬해 초 초대 주한미국 공사가 갑자기 사임하자 대리공사직을 맡아 1년 반 복무하고, 1886년 9월 공사직이 다시 공석이 되자 약 100일간 두 번째 대리공사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29세 청년으로서 외교관 경험이 전무하였고 본국의 지원도 많이 받지 못하였으나, 조선 왕실의 신임도 받고 미국의 무역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공사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²⁰⁾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시사대학에서 가르쳤으며 1893년 사망하였다. 미국에서는 무명의 인물이나 다름없었지만, 한미 관계를 연구하려는 노블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포크 문서를 확보한 노블은 포크에 대한 전기적 연구를 집필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그는 서울주재미국총영사 밀러(Ransford S. Miller, 1867~1932)의 허가를 얻어 포크 재직 시절의 주한미국공사관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1928년 초, 그는 한미 관계 중에서도 외교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밀러의 지원은 절대적이였다. “자료는 내게 완전히 공개되었고 제한이 없었다. 나 이전의 어떤 학자도 접근하지 못한 자료였다.”²¹⁾ 밀러는 1914년부터 1917년, 그리고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서울주재총영사였던 인물로, 25세 청년 노블이 공사관 자료를 마음껏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가 믿을 만한 선교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아시아의 미국인들』의 저자 데넷(Tyler Dennett, 1883~1949)도 중요한 조력자였다. 데넷은 원래 저널리스트였다. 30대 후반에 낸 『동아시아의 미국인들』로 명성을 얻은 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

20) 포크의 활동상에 관해서는 손정숙, 앞의 논문, 64~95쪽.

21)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 iv.

며, 국내에서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유명하다. 노블은 『동아시아의 미국인들』을 읽고 한국 연구를 결심한 이래 주로 서신 교환을 통하여 그와 교류하고 있었고, 국무부 출판부장이었던 그의 허락을 받아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노블은 이러한 도움을 받아 두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1883년 미국을 방문한 한국 사절단(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과 「한국에 있었던 각국 조계(The Former Foreign Settlements in Korea)」가 그것이다. 21쪽 분량의 「한국 사절단」은 보빙사의 파견 배경과 인적 구성, 미국 순방의 구체적인 일정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민영익을 비롯한 보빙사 주요 인물들의 행보를 에필로그처럼 다루었다. 이 글은 한국지부 학술지인 『회보』 1929년호(1930년 출간)에 수록되었는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²²⁾ 「각국 조계」는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부터 각국 조계 설치와 운영, 철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16쪽 분량의 글로, 『미국국제법학보』 1929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당시 그의 신분은 ‘캘리포니아대학 대학원생 조교(teaching fellow, University of California)’였다.²³⁾

두 편의 글은 보빙사와 각국 조계에 대한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밀러와 데넷의 도움으로 공사관 자료와 외교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 역사학 연구 성과로서 손색이 없다. 자료와 관련해서 필자가 부연하고 싶은 것은 노블이 자기보다 앞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서양인들의 저술을 자료 또는 선행 연구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1세대 한국 전문가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의 유명한 책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과 『근대 한국의 선구자 아펜 켈러의 전기(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1912)를 「한국 사절단」 참고문헌 목록에 올렸다. 그리피스는 그의 책에서 발견된 수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생애 내내 명성을 유지하였으

22) 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he First Embassy Sent by Korea to an Occidental Nation”, *Transactions* Vol. XVIII, 1929.

23) Harold J. Noble, “The Former Foreign Settlements in Kor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No. 4 (Oct., 1929).

며, 한국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재한서양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다. 1927년 봄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 지부는 그를 초대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노블의 자형 아펜젤러가 사회를 보았다.²⁴⁾ 당시 한국에 있었던 노블도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노블은 선교사 또는 선교사 출신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남긴 기록을 참고하였다. 『각국 조계』 참고문헌 목록에는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의 『한국의 역사(History of Korea)』(1906),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의 『제물포(Cheumulpo)』(1897), 그리고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의 『연표(A Chronological Index)』(1901) 등이 기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헐버트와 존스는 1890년대부터 한국을 공부하여 한국지부의 창립과 초기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노블은 이러한 류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까지 집필하였다. 서구 한국학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한다.

노블은 1929년 9월 UC 버클리 사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그의 지도교수는 중국사를 전공한 베이커(Dwight C. Baker, 1892~1971)였다. 그러나 그는 베이커보다 스탠포드대학 사학과 의 트리트(Payson J. Treat, 1879~1972)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트리트는 미국의 토지 제도를 전공하였으나 1910년대 이후 미일관계사로 관심을 돌린 학자인데, 노블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가 한국 문제를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제의 일부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UC 버클리와 스탠포드대학은 가깝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미국에서도 계속되어 트리트는 노블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에도 참여하였다.²⁵⁾ 사실 한국사를 전공한 교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느 대

24) 1927년 4월 11일 열린 이 행사에서 그리피스가 낭독한 연설문은 『회보』 1927년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한국지부 창립총회 이후 첫 번째 열린 회의에서 초대 서울주재영국총영사를 지낸 에스턴(William G. Aston, 1841~1911), 스코틀랜드 출신 만주 선교사 로스(John Ross, 1842~1915)와 함께 명예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25) 지도교수 베이커, UC 버클리 동양학과의 일본인 교수 쿠노(Yoshi S. Kuno, 1865~1941), 그리고 트리트가 노블의 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하였다.

학을 선택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직 결혼 전이었던 노블이 형제들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UC 버클리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UC 버클리에 1927년 9월 박사 과정에 입학한 형 올든은 물론 1년 후 학부에 입학한 쌍둥이 형제 글렌과 엘머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노블은 UC 버클리에 입학한 지 2년 만인 1931년 8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를 축적해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박사학위논문 외에는 미국학술단체협의회가 편찬하는 『미국인물사전(Dictionary of American Biography)』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인 4명의 삶을 기록하였다. 연무공원 교관 다이(William M. Dye, 1831~1899), 1890-1893년 주한미국 공사 허드(Augustine F. Heard, 1827~1905), 법률 고문 그레이트하우스(Clarance R. Greathouse, 1846~1899), 그리고 포크였다.²⁶⁾

노블의 박사학위논문 『1895년 전 한국과 한미 관계』는 포크의 초상화와 현사(“뛰어난 미국 외교관이었던 포크 중위를 추모하며”), 1931년 8월 1일 작성된 서문(7쪽),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13개 장의 본문(568쪽), 참고문헌(9쪽), 부록(21쪽)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로는 주한미국공사관 자료를 중심으로 포크 문서, 미국 정부 출판물, 영국 의회 문서,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의 원문, 수십 종의 단행본·소책자·잡지·신문 등이 활용되었다. 대략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목차를 소개한다.

[표1] 노블의 박사학위논문 『1895년 전 한국과 한미 관계』의 목차

장	제목	쪽수	장	제목	쪽수
	서문	i~vii	7	중국의 지배력 강화	217~266
1	서론	1~14	8	포크 소위의 강제 소환	267~313
2	한국의 초기 대외 관계	15~37	9	선교, 상업, 영사 관련 사건들	314~389

26)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 575.

3	미국 해군의 한국 원정	38~53	10	주미한국공사관의 설치	390~444
4	최초의 조약들	54~94	11	한국에서 일본의 활동	445~508
5	주한미국공사관의 설치	95~172	12	청일전쟁의 발발	509~548
6	주한미국대리공사 포크 소위	173~216	13	결론	549~568

노블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떤지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한국과의 국교 수립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미국에 가져왔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쪽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과는 대립하고 일본과는 같은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 있었으므로 이후 한국에 대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는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독립은 한국이 스스로 쟁취한다면 모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미국이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일본에게 내 주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청일전쟁의 발발> 말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의 정책과 미국인들의 이익에 위협스러운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강해지는 것이었다. 허약한 아시아보다는 힘센 아시아, 힘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상업적 이익에 이바지할 것이었다. 한국은 강해질 수 있었고 그랬다면 더 좋았다. 하지만 만일 한국이 약해진다면, 만일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할 의지가 없다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은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²⁷⁾

미국이 불편부당하고 자기희생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27)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p. 547~548.

것은 아니었지만 널리 수용된 것도 아니었다. 노블의 가장 오랜 멘토 데넛은 1922년 『동아시아의 미국인들』에서 “미국 정책의 주근(主根)은 박애가 아니라 최혜국 대우 요구”라고 천명하였으나,²⁸⁾ 또 다른 멘토 트릿은 전년도에 발표한 저서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이 “문화 개방의 원칙과 중국의 독립을 믿으며 어떤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고 변호하였다.²⁹⁾ 트릿의 사고가 당시에는 훨씬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블은 데넛과 기본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가운데 대한국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그리스도교 선교나 근대 문명 전파, 약소국의 독립이 아니라 시장과 상업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조금은 불편한 내용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은 내가 태어난 땅이다. 나는 그곳에서 인생의 죽히 절반을 보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의 유쾌한 기억과 어른이 된 후 즐거운 인간 관계의 기억 모두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나는 혈통으로나 성향으로나 미국인이다. 성장기에는 직접 목격한 현장과 한국인 친구들로 인하여 격렬한 동정심을 가졌지만, 내가 믿기로 미국 시민권은 나에게 한국사를 대할 때 진짜 한국인이라면 갖기 힘든 객관성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우리 시대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흔한 속성인 맹목적인 미국 정책 숭배를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믿는다.³⁰⁾

인용문은 박사학위논문 서문의 일부이다. “우리 시대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흔한 속성인 맹목적인 미국 정책 숭배”라는 구절에서 노블의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관점을 형성하게

28) Tyler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A Critical Study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ference to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2, p. i.

29) Payson J. Tre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853-1921*,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21, p. 243.

30)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p. i-ii.

된 이유를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한국인들을 향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졌으나 그것이 자신의 연구에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애정의 결과물인 편견이 오직 신중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만 뿌리뽑힐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몇 년간의 역사 연구 후에야 근대 한국의 기록을 내가 개인적으로 목격한 일련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볼 수 있었다.”³¹⁾

노블은 졸업과 함께 오리건주 유진에 소재한 오리건대학 사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1933년 포크의 외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룬 글을 『태평양역사학보』에 게재하였고,³²⁾ 이듬해 부교수로 승진하여 오리건대학에 안착하였다. 그는 오리건주 5개 공립 교육 기관을 통틀어 역사학 강좌를 담당한 5명 중 하나이자 역사학 박사 학위를 가진 3명 중 하나로, 총 3학기에 걸쳐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강의하였는데 강좌명에는 한국이 없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다루었다. 1학기에는 삼국의 문화사로 지리, 언어, 문학, 철학, 종교, 교육, 정부, 사회 조직을, 2학기에는 1800년부터 1900년, 3학기에는 1900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내 역사와 국제 관계를 가르쳤다.³³⁾ 또한 중국학과 일본학 분야에서 록펠러 연구 기금을 받았고 1939~1940년에는 일본에 머물며 제3대학(Third College: 교토대학의 전신인 제3고등학교를 지칭)에서 가르쳤다.³⁴⁾ 다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원 입학 후 결혼한 아내와 몇 년 만에 이혼하고, 1936년 오리건주 출신의 교사 하인즈(H. Eleanor Heinz)와 재혼하였으나 또 실패하였다. 하인즈는 1940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고, 그 역시 라인하트(Myrtle Rinehart)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 딸의 이름은 자신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조이스(Joyce R. Noble)로 지었다.

31)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p. ii~iii.

32) Harold J. Noble, “The United States and Sino-Korean Relations, 1885-1887”,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2 No. 3 (Sep., 1933).

33) Portland Extension Center, *Oregon State System of Higher Education Bulletin: Announcements 1934-1935*, Portland, Oregon: Portland Extension Center, 1935, pp. 39~40.

34) Spencer C. Tucker (ed.), *The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Vol. I: A-L,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2010, p. 637.

1941년은 노블이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0년 되던 해이다. 이 해에는 미국의 한국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UC 버클리 사학과에서 또 한 명의 한국 연구자 맥쿤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맥쿤은 노블과 마찬가지로 선교사 2세였다. 그는 노블보다 5년 뒤인 1908년 평양에서 북장로교 선교사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안북도 선천에서 성장하였고, 1921년 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심장 질환을 치료 받은 후 학업을 시작하였다. 1926년 부친이 총장으로 있던 휴런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이듬해 럿거스대학으로 옮겼고, 한 학기 후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옥시덴털대학에 편입하여 1930년 역사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맥쿤은 귀국하여 숭실전문학교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한편 식료품 무역 상회를 운영하였고, 건강 악화로 하와이에서 요양하던 중 북감리교 선교사 2세 베커(Evelyn M. Becker, 1907~2012)와 결혼하였다.³⁵⁾ 1934년 모교인 옥시덴털대학 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이듬해 석사학위논문(일본사)을 제출하고, 바로 UC 버클리에 진학하여 『1800-1864년 한국의 대중·대일 관계(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로 1941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데까지 노블의 3배인 6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였고 1939년 옥시덴털대학 강사로 임용되어 논문 집필과 강의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그는 옥시덴털대학에 재직하면서 부교수가 되었고 1946년 UC 버클리로 옮겼다.³⁶⁾

노블과 맥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어쩌면 꽤 오랫동안 안 모르는 사이였을지도 모른다. 5년 차이로 평양에서 태어나 비슷한 길을

35) 미국의 한국학과 관련하여 베커 즉, 맥쿤 부인은 남편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1930년 UC 버클리에서 학부(영문과)를 마치고 1932년 사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으며,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남편이 사망한 후 학업을 재개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50년 국회도서관 동양부 한국과 책임자가 되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였고, 1956년부터 1978년 은퇴하기까지 디아블로밸리대학에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사는 미술사와 복식사였다. 『한국의 미술(The Arts of Korea)』(1961)과 『한국의 병풍(The Inner Art: Korean Screens)』(1983) 등을 출간하였다.

36) 맥쿤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김서연, 『조지 맥아피 맥쿤(George McAfee McCune)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사연구』 181, 한국사연구회, 201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결했으나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쿤이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한 이상 그가 노블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맥쿤에게 노블은 한국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학계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선배였고, 노블에게 맥쿤은 1939년 발표 즉시 유명해진 맥쿤라이사워표기법(McCune-Reischauer Romanization)의 고안자이자 한국 연구의 유일한 동지였다. 두 사람은 미국 서부의 북쪽(노블)과 남쪽(맥쿤)에서 각각 한국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1941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극동협회(Far Eastern Association)의 창립과 기관지 『계간 극동(The Far Eastern Quarterly)』의 창간이다. 『계간 극동』은 “1500년 이후 시대에 중점을 두고 극동을 다루는 학제간 학술지”를 표방한 동아시아 전문 학술지로서,³⁷⁾ 1956년 『아시아학보(The Journal of Asian Studies)』로 이름을 바꾼 이래 현재까지 아시아 거의 전역을 다루는 학술지로 계간 발행되고 있다. 발행 기관인 극동협회 역시 아시아학협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로 개칭하였다.

『계간 극동』은 컬럼비아대학 중국어일본어학과의 피크(Cyrus H. Peake, 1900~1979)(중국사), 보튼(Hugh Borton, 1903~1995)(일본사), 컬럼비아대학의 박사후과정생이었던 프리처드(Earl H. Pritchard, 1907~1995)(중국사)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세 사람은 학술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자문편집위원회(Advisory Editorial Board)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자문편집위원회에 속한 학자들은 초기 발행 자금 마련을 위하여 25달러씩 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극동협회의 실질적인 주역으로서 물심양면으로 『계간 극동』에 참여하였다. 프리처드는 이들을 “26명의 편집자들(The Twenty-Six Editors)”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은 프리처드가 소개하고 필자가 보완한 이들의 인적 사항이다.³⁸⁾ 1~16번은 창간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고 17~26번은 이후 합류한 사람들이다.

37) Earl H. Pritchard,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28-4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2 No. 4 (Aug., 1963), p. 513.

38) 위의 논문, pp. 514-516.

[표2] 『계간 극동』 자문편집위원회 위원 명단

번호	성명	생몰연대	전공	소속
1	블리스(William B. Ballis)	1908~2001	정치학	오하이오주립대학
2	비거스태프(Knight Biggerstaff)	1906~2001	중국사	코넬대학
3	빙엄(Woodbridge Bingham)	1901~1986	중국사	UC 버클리
4	캐머런(Meribeth E. Cameron)	1905~1997	중국사	밀워키다우너대학
5	콜그로브(Kenneth W. Colegrove)	1886~1975	정치학	노스웨스턴대학
6	크레시(George B. Cressey)	1896~1963	지리학	시리큐스대학
7	파스(Charles B. Fahs)	1908~1980	정치학	포모나클레어몬트대학
8	페어뱅크(John K. Fairbank)	1907~1991	중국사	하버드대학
9	홀(Robert B. Hall)	1896~1975	지리학	미시건대학
10	맥네어(Harley F. MacNair)	1897~1947	중국사	시카고대학
11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	한국사	오리건대학
12	퀴글리(Harold S. Quigley)	1912~1990	정치학	미네소타대학
13	슐트하이스(Frederic D. Schultheis)	1907~1980	중국사	워싱턴대학
14	스위셔(Earl Swisher)	1902~1975	중국사	콜로라도대학
15	툼슨(Virginia Thompson)	1903~1990	사회학	태평양관계연구소
16	비트포겔(Karl A. Wittfogel)	1896~1988	사회학	사회조사연구소
17	반덴보쉬(Amry Vandenbosch)	1894~1990	정치학	켄터키대학
18	개스킬(Gussie E. Gaskill)	1898~1988		코넬대학 도서관
19	빌(Edwin G. Beal, Jr.)	1913~2002		국회도서관 동양부
20	홉스(Cecil Hobbs)	1907~1991	동남아시아사	국회도서관 동양부
21	샤프(Lauriston Sharp)	1907~1993	인류학	코넬대학
22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	일본학·중국학	하버드대학
23	무어(Harriet Moore)	1912~2013	정치학	
24	맥쿰(George M. McCune)	1908~1948	한국사학자	UC 버클리
25	부드버그(Peter A. Boodberg)	1903~1972	중국학자	UC 버클리
26	식맨(Laurence C. Sickman)	1907~1988	미술사학자	넬슨앳킨스미술관

노블은 창간호에 이름을 올린 16인 중 하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중국사 연구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유일한 한국사 전공자로서 여기에 참여한 것이

다. 맥쿤은 1947년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40세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UC 버클리 부교수가 된 후의 일이었다.

4. 태평양 전쟁 참전과 한국에서의 활동

노블의 묘비는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소재한 골든게이트국립묘지에 있다. 해병대 예비역 소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정확히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전한 것은 아니고 동원된 것이었다. 그는 1939~1940년 일본에 체류한 덕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므로 전쟁 수행에 매우 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되었다. 1942년 6월 그는 오리건대학 동료 교수 덜(Paul S. Dull)과 함께 남캘리포니아의 캠프 엘리엇에서 해병대 제2사단을 대상으로 일본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설립한 3개월 과정의 어학교는 제2사단이 남태평양으로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고, 1944년 캠프 펜들턴으로 이전하여 150명이 넘는 해병을 졸업시켰다.³⁹⁾ 국내에서의 일본어 프로그램 운영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노블은 1944년까지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솔로몬 제도에서 전투 정보 장교, 일본어 장교, 중대장, 제3사단 사령관 등으로 활약하였다. 1943년 11월 부겐빌 섬에서는 “뛰어난 용기와 헌신적인 임무 수행”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⁴⁰⁾

노블은 1945년 오리건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태평양역사학보』 편집위원회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역사학회에서도 태평양사 부문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참전 후 그의 관심 분야와 활동 영역은 더 이상 학계가 아니었다. 그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세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저널리즘에 진출하였다. 1945년 5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간지 중 하나인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Give the Devils Their Due)』를 발

39) James C. McNaughton, *Nisei Linguists: 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7, p. 160.

40) Spencer C. Tucker (ed.), 앞의 책, p. 637.

표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일본군이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이는 야만인이거나 위험한 미치광이 집단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자원을 갖춘 “1등급 적(first-class enemy)”이라고 평가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⁴¹⁾ 9월에는 미군의 일본 점령과 관련하여 『일본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What It Takes to Rule Japan)』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 이 두 글을 묶어서 『일본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을 출간하였다.

1946~1947년 노블은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통신원으로 일본에 체류하였다. 그는 일본의 교육 개혁, 히로히토 천황의 전후 역할, 일본인들의 각성, 좌익의 발흥을 주제로 5편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맥아더 군정을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일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얻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중국, 호주,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의견도 적극 피력하였다. 『우리가 중국에서 손을 떼야 하는가?(Should We Pull out of China?)』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옹호하였고, 『호주가 한 태평양 강대국을 깨우다(Australia Wakes up a Pacific Power)』에서는 호주의 대일 보복 정책과 백호주의를 비판하였다. 『가장 위험한 우리의 경계(Our Most Dangerous Boundary)』에서는 미국이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1947년 5월 『뉴 리더』에 실은 다른 글에서는 한국에는 과도한 이윤, 만연한 부재지주제, 기상천외한 지대(地代), 끔찍한 노동 조건 등 개혁해야 할 것이 많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 대한 그의 입장은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와 남한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요약되는데, 종전 후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를 고려하면 그의 반공주의가 지나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1947년 노블은 통신원에서 정부직으로 옮겨갔다. 그는 미국동군사령부 민

41) John D. Chappell, *Before the Bomb: How America Approached the End of the Pacific War*,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6, p. 51. 당시 미국에는 일본군을 야만인 또는 광신도로 치부하는 시각이 만연하였는데, 노블은 자신의 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가 일본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친일 성향으로 평가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간정보부 출판부장으로 도쿄에서 근무하였고, 이듬해에는 서울에서 주한 미군사령부의 정치연락사무소장으로,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 겸 군정사령관 하지(John R. Hodge)의 정치 고문으로 복무하였다.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군정이 끝남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9~12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 총회 미국대표단의 고문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치오(John J. Muccio)의 요청에 응하여 1등 서기관직을 맡았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한 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작용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이 나라를 북위 38도에서 양분했는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위적인 분단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원, 심지어는 촌락들까지 갈라놓는 인도적으로 매우 괴상한 것이었다. 일본마저도 한국에 이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보상하려 했다. 이제 이 정부에 도의적 그리고 그밖의 지원을 함으로써 새 정부가 몇 년 사이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할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이런 의무와 지원의 공식적인 표현이었다.⁴²⁾

인용문은 그가 1952년 7월 마무리한 『전쟁 중의 대사관』의 일부이다. 한반도를 인위적이고 괴상하게 분단시킨 데 대한 속죄 행위로서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미국’ 또는 ‘우리’(주한 미국대사관 사람들)를 주어로 썼지만 사실상 본인의 생각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여 년 전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혔듯 미국의 대외 정책에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미국이 소련과 함께 한반도와 한국인들을 갈라놓은 데 도의적 책임감을 느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형성과 미래에 책임이 있다는 그의 생각은 서기관으로 부임하기 전 기고한 『한국은 반쪽짜리 자유

42) 헤럴드 노블 저, 박실 역, 앞의 책, 15~16쪽. 오역이 발견되지 않아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를 유지해야 한다(Korea Must Stay Half Free)』에도 잘 드러나 있다.

노블은 1949년 8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서기관으로 재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와 대통령 이승만의 오랜 인연이 언급되곤 하는데, 이승만이 1894년 11월 배재학당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선생이 노블의 부친이었다고 한다. 이승만의 전기를 쓴 올리버(Robert T. Oliver)에 따르면 “이승만은 노블에게서 알파벳을 배웠다. 그는 노블의 온화함과 참을성, 강인함에 경의를 표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편 아들 노블은 1938년부터 이승만 내외와 알고 지냈는데, 실제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된 것은 서기관으로서 한국에 온 후부터였을 것이다. 대사를 대신하여 또는 이승만의 부름으로 매일 오후 이승만이나 그의 아내를 만났으며, 가까이서 관찰한 결과 그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광적일 정도로 헌신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⁴³⁾ 그는 1950년 6월 23일 첫 휴가를 받아 도쿄로 갔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27일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전쟁 초기 6개월간 주한미국대사관 선임 연락관으로서 대통령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18개월의 서기관 생활을 마친 노블은 1951년 6월 미국에 돌아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앙정보부(CIA) 기관으로 발족한 자유아시아위원회에 합류하여 고위직을 맡았고, 『전쟁 중의 대사관』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52년 7월 탈고하였다. 몇몇 출판사들이 출간에 관심을 보였으나 상업성이 좋지 않다고 하여 결국 거절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국전쟁이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전쟁에 대한 책을 읽기를 바라지 않았다. 1년 후 한국전쟁이 정전 회담으로서 일단락되자 그는 1953년 9월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쓸 생각으로 『뉴 리더』에 「싸움은 다시 시작될 것인가?(Will the Fighting Start Again?)」 등 2편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러나 집필 작업은 거기서 그쳤다. 그는 성탄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1953년 12월 22일 호놀룰루행 비행기 안에서 심

43)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앞의 책, 27쪽.

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⁴⁴⁾

1942년부터 사망하기까지 11년간, 노블은 본업인 연구와 강의 대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고 미군이 점령한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자유아시아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그만 그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 1941년 박사 학위를 받은 맥쿤은 학계에서 뭔가를 해 보기도 전에 전쟁에 동원되었다. 그는 중앙정보부의 전신인 전략정보국(OSS)에서 2년간 분석가로 일한 후 전시경제위원회를 거쳐 국무부 한국담당관으로 재직하였으며, 1946년 UC 버클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불과 2년 후 사망하였으므로 학자로 활동한 시간이 극히 짧았다.

5. 맺음말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노블에 대한 시론적 검토는 여기까지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가 북감리교 선교사 2세로 평양에서 나고 자란 것,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인도사로 석사 학위를 받은 것, 그리고 1925년경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데넷의 저서를 읽고 한미관계사 연구를 결심한 것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가 1926년 고향 한국에 돌아와 포크 문서와 주한미국공사관 자료를 연구한 것, 1929년 UC 버클리에 들어가 맥쿤보다 10년 먼저 박사 학위를 받은 것, 오리건대학 사학과에서 동아시아사를 담당하며 한국사를 가르친 것, 1941년 한국사 연구자로서 극동협회와 『계간 극동』에 기여한 것을 다루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학계에만 머물 수 없었던 그의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다루었다.

노블의 박사학위논문은 한국 선교사 2세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물이

44) 이상의 내용은 노블의 삶에 대한 볼드윈의 기록(Harold Joyce Noble, *Embassy at Wa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Frank Baldwin*, pp. xii-xiii)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었다. 그는 서울주재미국총영사의 도움으로 주한미국공사관 문서를 입수하여 논문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그의 부모가 존경 받는 선교사였고 그 역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대체로 소극적인 정책을 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보다 미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논문으로서 오리건대학에 임용되었으며,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 전까지 최소 10여 년간 한국사 전공자이자 동아시아 연구자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블이 미국 한국학의 초대 주자로 알려지지 않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그가 태평양 전쟁 참전을 계기로 오랫동안 학계에서 활동하지 못한 것, 또 하나는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선교사 2세로서 일본학자가 된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의 예를 소개하면, 그 또한 1939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태평양 전쟁 때 미 육군정보국에서 일본 전문가로 근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9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버드대학에서 총 40년간 가르치고 일본연구원도 설립하면서 일본학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 맥쿤은 노블보다 활동 기간이 짧은 데 비하여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가 박사 과정 때 만든 맥쿤라이샤워표기법 때문이지 그의 박사학위논문이나 미국에서의 짧은 활동 때문이 아니다.

필자는 노블의 모친 매티가 남긴 자료와 그녀에 대한 선행 연구, 노블의 박사학위논문과 연구 논문, 『전쟁 중의 대사관』에 수록된 볼드윈의 전기적 연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미국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입수한다면 좀더 풍성한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김서연, 『조지 맥아피 맥쿤(George McAfee McCune)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사연구』 181, 한국사연구회, 2018.
- 매티 윌콕스 노블 지음, 강선미·이양준 옮김, 『노블 일지, 1892-1934』, 이마고, 2010.
- 손정숙, 『한국 근대 주한미국 공사 연구(1883-1905)』,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885-1985 ① 연세통사 (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이영미, 『1900-194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와 서양인들의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6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조선훈, 『노블 부인의 선교 생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매티 노블의 선교 생활,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 속의 大使館』, 한섬사, 1980.
- 홍승기, 『<서평> Embassy at War by Harold Joyce Noble,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XXIV+331 pp.』, 『역사학보』 80, 역사학회, 1978.
- Earl H. Pritchard, “The Foundation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28-4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2 No. 4 (Aug., 1963).
- James C. McNaughton, *Nisei Linguis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7.
- John D. Chappell, *Before the Bomb*,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6.
- Payson J. Tre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853-1921*,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21.
- Portland Extension Center, *Oregon State System of Higher Education Bulletin*, Portland, Oregon: Portland Extension Center, 1935.
- Spencer C. Tucker (ed.), *The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Vol. I,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2010.
- Tyler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2.
- Harold Joyce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31.
- _____, *Embassy at Wa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Frank Baldwin*,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 _____,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dex to Monographs, Vol. I-XVI”, *Transactions* Vol. XVII, 1927.
- _____,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he First Embassy Sent by Korea to an Occidental Nation”, *Transactions* Vol. XVIII, 1929.
- _____, “The Former Foreign Settlements in Kor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No. 4, Oct., 1929.

_____, "The United States and Sino-Korean Relations, 1885-1887",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2 No. 3, Sep., 1933.

Life and Work of Harold J. Noble (1903~1953), First Korean History Specialist of the United States

Lee Yeong-Mi*

Harold J. Noble (1903~1953), son of missionarie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who came to Korea in 1892, was the first American scholar who received his Ph. D. in Korean history and worked in academia. In 1931, he submitted his doctoral thesis titled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to University of California. After graduation, he taught as a full-time faculty membe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Oregon as well as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a learned society and publishing its journal. He did not work long as a university historian; he served in World War II, worked in Korea for a few years, and died at the age of fifty. However, he was the first person to settle into American academia by studying Korea and to work with contemporary East Asian specialists. His role and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re never small.

This article is an introductory study of life and work on Korea of Noble. First of all, the author reviews his birth, growth, and education, and finds out that he decided to be a scholar of Korean-American relations around 1925 under the influence of Tyler Dennett (1883~1949). The second chapter covers his work on Korea: he began his study in Korea, not in America; he got his doctorate ten years earlier than George M. McCune (1908~1948); he taught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Korean history as East Asian histor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regon; he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the Far Eastern Association and in publishing *The Far Eastern Quarterly*. Finally, the author examines the last decade of his life. He served in the Pacific War, 1942~1944, and worked in Japan and Korea after the war.

Key words: Harold J. Nobl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y), University of Oregon, Tyler Dennett, George M. McCune, Far Eastern Associa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